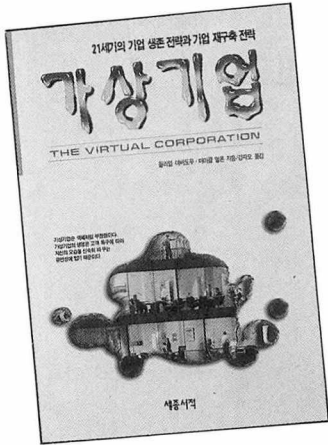


21세기 미래기업 형태 예측서

데비도우 외 지음 「가상기업」



과연 21세기의 미래기업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오늘날 '합작업체'들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전략적 제휴'는 미래기업의 조직이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지를 어렵잖이나마 가능하게 해준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Just In Time(무재고 생산 시스템), CIM, TQC, 간판 시스템, 카이젠, CAD/CAE 등의 생산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가상 기업(The Virtual Corporation)」의 저자들(윌리엄 데비도우: 미국 벤처 캐피털 회사의 이사, 마이클 멀론: 인터뷰 프로그램 진행자)은 21세기 미래기업은 당연히 '가상기업'이라고 단언한다. 이 가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바로 '가상제품(Virtual Product)'이며, 그것은 고객들의 요구를 신속히, 때로는 즉석에서 만족시켜준다는 것. 이를 위해 가상제품은 생산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의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상품의 개념·디자인·제조과정은 일체 유연한 생산 라인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가상기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굴뚝사회로 비유되는 제2의 물결 시대에는 '수직적 통합'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지나친 복잡성, 낡은 기술의 감가상각, 조직의 경직성 등 '감춰진 비용'들은 수직적 통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완전히 상쇄해버리고 말았다. 선진국들이 지식산업에 바탕을 둔 제3의 물결로 이동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비수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한 조직 내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외부업체들에 여러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수직화를 전문용어로 '외부조달'이라 한다. 이 외부조달의 결과를 저자들은 가상기업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에 의하면, 가상기업은 스스로의 조직을 개혁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고도의 정보를 취급, 중요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즉시 시행한다. 또한 가상기업은 일정한 조직이 없이 유동적이다. 또 통합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객이나 공급자(부품공급자 및 하청기업)와 기업의 비밀까지도 공유한다는 것.

이 책과 '가상기업'의 개념은 세계적인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 커버스토리로 7페이지에 걸쳐 대서특필될 만큼 미국 등지에서 선풍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세종서적 / A5신 / 384면 / 7500원

영화거장 히치콕과의 대담집

프랑수와 트뤼포 지음 「히치콕과의 대화」



말은 글보다 붙은하다. 대담 혹은 대화록이 재미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다. 날것의 생각들이 튀어나오는 덕분에 인터뷰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과의 미세한 의견차이는 곧 설전처럼 보인다. 또한 '단한 사회'를 공격하는 잡지 이름이 '대화'였던 적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라이벌을 극복시키는 방법이 대화였다. 대화는 그만큼 생생한 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프랑스의 영화비평가이자, 고다르 등과 함께 누벨 바그의 기수로 꼽혔던 프랑수와 트뤼포(1932~84)가 그 유명한 영화감독 히치콕과 장장 50시간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히치콕과의 대화」 역시 생생한 날것의 사유가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는 책이다. 바쁜 히치콕을 붙들어놓고 인터뷰어는 끈질긴 질문공세를 통해 히치콕이 만든 영화 54편을 연대순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간다.

50여년간 영화만을 위해 살다 죽은 천재이자 노력이었던 히치콕의 영화에 대한 사랑과 정열, 진부한 것에 대한 혐오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적 집착, 그리고 그의 영화가 보여주는 죄의식, 관음증, 오디디푸스 콤플렉스 등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심오한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서스펜스의 이면에 숨겨진 참의미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디테일은 그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뷰어의 꼼꼼한 영화독법에 의한 예리한 질문들은 영화학도들에게 영화제작의 비의를, 영화팬에게 감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답변자의 성실한 응답은 일반독자에게 이 책이 위대한 예술가의 치열한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고백록으로 읽히게 한다.

오늘날 히치콕과 그의 작품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책 덕분임을 아는 이는 드물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히치콕을 그저 서스펜스 스릴러 전문의 흥행감독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1967년,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면서 히치콕은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저자 프랑수와 트뤼포는 프랑스 영화사상 처음으로 작가주의를 정식화한 '작가 정책'을 주장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1959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으며, 이후 누벨 바그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역자 곽한주·이채훈씨는 「대중영화의 이해」를 공역했던영화책 번역 커플이다. 그들은 이 책이 "인터뷰 형식을 빌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영화비평서"라고 소개했다.

한나래 / B5변형 / 488면 / 12,000원

원고 를 디스켓 으로 받는다?

삼화에서 하는일

- PC출력 : 한글(아래아한글), 훈민정음, CAD 한글워드, 페이지메이커, 글사랑
- 한글 및 각종PC로 입력한 원고 편집출력
- 전자조판(소설책, 문제집, 논문집등)
- 공개글꼴 및 상용글꼴 사용환경지원
- PC를 이용한 전자조판 상담

원고를 디스켓으로 받아 보셨습니까? 이제 직접 출력실을 찾아주십시오! 어떠한 컴퓨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원고라도 바로 인화 및 필름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자가 PC로 작성한원고를 전산사식 시스템으로 변환해 재편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의 절약은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오탈자가 전혀 없으므로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전화를 주시면 서체샘플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

- 출력기 3대 • 레이저 3대
- 입력편집기 다수

 **삼 화 전 산**

TEL : 263-265(대)

FAX: 263-2653 모뎀: 277-8097

문화사적 측면에서 본 역사 개설서

E.M. 번즈 지음 「서양문명의 역사」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로마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는 사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누누이 이야기되는 역사의 한 토막이었지만, 인과법칙에 의해 천착해 본 역사는 사뭇 다를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역사는 합법칙성을 띠기도 하지만 한낱 우스갯소리로도 들린다.

에드워드 맥널 번즈가 쓰고 스탠디시 미첨, 그리고 로버트 러니가 개정한 「서양문명의 역사」(전4권)는 역사의 물줄기와 함께 그 위에 흘러가는 부유물질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책은 1941년에 초판이 발간되어 44년동안 12판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저자의 학문적 명성을 높여주면서 대중의 인기도 끌고 있는 역사 개설서다.

역사를 정치발전사의 측면에서만 강조하지 않고 사상과 제도 등 문화사적인 면에서 총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 역사라는 큰 무대에 지배자나 남성들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던 기존의 서술방식을 탈피해서 일반민중이나 여성들까지도 역사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 책은 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정말로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개명한 군주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저자의 견해를 성급하게 살펴본다면 그 대답은 ‘노’다. 솔로몬은 7백명의 아내와 그것도 모자라 3백명의 후궁을 거느리기 위해 하렘을 지었고, 자신을 위한 호화스러운 궁전뿐 아니라 자신의 4천마리 말을 위한 마굿간도 지었다는 사실이 솔로몬의 유죄에 대한 증거물이다. 또 솔로몬이 죽자 곧바로 나라에 운동반란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으로 분리되었다는 사실 등에서 ‘상식적인 역사의 허구’를 벗겨낸다.

저자는 또 오늘날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명품으로 책과 함께 시계를 꼽고 있다. 시계가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서양인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 있다. 즉 시간에 집착하는 서양인들의 특성이 시계 발명과 함께 생겨났다는 것. 이밖에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유명해지게 된 것은 로마시대의 박해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주장이나 콜롬부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에 바이킹이 미 대륙을 먼저 밟았다는 주장 등이 새롭다. 풍부한 사례와 1천여점의 사진으로 서양사를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소나무/B5/각 286면 내외/각 12,000원

'9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작품집

오에 겐자부로 지음 「침묵의 외침」 「절규」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가와바타 야스나리 에 이어 동양인으로는 세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작품들이다. 불과 한달 사이 5, 6종이 쏟아져 나오는 데 있어 마련인 노벨문학상 특수를 겨냥한 출판붐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는데, 정작 수상자인 「萬延 元年의 풋볼」(‘67년작)의 역서는 없고, 「세븐틴」(‘60년작) 「개인적 체험」(‘64년작) 「침묵의 외침」(‘62년작) 등과 같은 여타작품들의 출간만 앞다투는 기현상이 빚어진 데다, 특히 일부 책에는 실제와 다르게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라는 따지까지 붙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생기기도 했다.

그 원인은 지난 10월13일 스웨덴의 한림원이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The Silent Cry」로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침묵의 외침」이라고 옮겨지는 이 제목만 보고 국내 출판사들이 오에의 '62년도 작

품 「叫び聲」으로 예단, 재확인작업 없이 급히 번역해 내면서 이것이 ‘수상작’으로 탈바꿈해 버린 것. 실제 「叫び聲」의 역본일 것 같은 「The Silent Cry」는 작가의 '67년도 작 「만연의 원년의 풋볼」의 영역 제목으로, 일본문학번역자 존 베스터가 의역해 붙인 것이 국내 출판업자들의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아쉬운 대로 작가의 문학세계를 엿보고자 한다면 여기 이 두 권과 함께 다른 역본들을 참고하면 되겠다.

다같이 「叫び聲」을 번역한 「침묵의 외침」(국일문화사)과 「절규」(신세대)는, 전후 일본사회에 팽배해 있던 부조리와 소외에 대항하는 청년들의 고뇌를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한 장편소설. 젊었을 때부터 신좌익 정치노선을 고수하면서 문명의 본질을 고발해 왔던 작가의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 경건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수상작 「만연 원년…」 또한 萬延 원년이었던 1860년 막부시대의 민중투쟁과 전후 일본의 사회상을 대비시키면서 달라진 시대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오에는 대체로 전후세대 젊은이들의 고뇌를 신화적인 상상력으로 탁월하게 형상화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소설양식인 사소설에서 탈피, 실험적 방법으로 현대인의 본질을 문학속에 투영해온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혀온 인물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작이 발표될 무렵이면 기자들이 그의 집앞에 진을 치고 있다시피할 만큼 유력후보로 거론돼 오다 이번에 수상했다.

국일문화사/A5신/212면/5000원
신세대/A5신/236면/5000원

일등만이 소중한 기억 되는 승부의 세계!



DESIGN 세계에서
제일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승부를 겁니다.

- 표지·카타로그·심볼·광고 DESIGN
- 사보·잡지·단행본 EDIT
- 기획
- Macintosh OUT PUT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PRINTEMPS 백화점) 2415호
TEL:319-0030~1, FAX:319-0032

(주) 태 리 기 업 디자인실